

“봉사자 여러분, 한해 애쓰셨습니다”

2017년 충청북도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가 8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정성업 충북도보건의료국장, 김영주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 사회복지단체장, 자원봉사자, 인증관리요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12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홍보와 참여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와 관계자들에 대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서원대학교 음악교육과의 합주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우수 자원봉사관리센터 현판 증정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1명, 충청북도지사 표창 6명, 충청북도의회위원장 표창 6명,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7명 등 총 20명이 표창을 받았다.

현재 활동 중인 도내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10개소에 우수 자원봉사관리센터 현판이 증정되어 그동안 자원봉사 활성화에 헌신해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심의보 회장은 오늘 행사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송고한 마음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자에

■ 2017년 충청북도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성료

유공자 20명 표창·우수 봉사관리센터 10곳에 현판 증정
심의보 회장 “자원봉사자의 송고한 정신 널리 전파 되길”



제12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12월 8일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2017년 충청북도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가 진행됐다.

대한 감사와 격려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며, 오늘 이 대회를 계기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시는 분들의 따뜻하고 송고한 정신이 우리

사회에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날 수상한 유공자 표창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이일만(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청북도지사 표창
김진한(나우리회), 박옥란(청주내덕노인복지관), 박은희(충주종합사회복지관), 오희정(충주시노인복지관), 이상순(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정영기(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충청북도의회위원장 표창
김연옥(나우리회), 김인숙(충주종합사회복지관), 김혜경(청주시에안종합복지관), 언정란(나우리회), 지귀순(청주내덕노인복지관), 지순도(산백아동복지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김우상(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 박성자(나우리회), 백혜자(나우리회), 오진순(스마일봉사단), 이문숙(충주종합사회복지관), 이영미(스마일봉사단), 한우락(삼보사회복지관)
우수 자원봉사관리센터 현판 증정 명단
광화원, 괴산군노인복지관, 다은빌, 청심노인요양원,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주시회사카이터엔지(충북분부), 충주시노인복지관, 충주카타르노인요양원, 충청북도중앙도서관, 현암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청주상당공원에서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진행했다.

사랑의 나눔으로 2018년 뜨겁게 출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18 나눔 캠페인 출범
1월 말까지 73일간 희망 릴레이... 66억7700만원 목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명식, 이하 충북모금회)는 1일 희망2018나눔캠페인 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청주 상당공원에서 진행했다.

희망2018나눔캠페인은 나눔으로 행복한 충북 을 슬로건으로, 2018년 1월 31일까지 총 73일간 희망 릴레이를 진행한다.

금번 캠페인의 모금목표액은 지난해 모금액인 65억4천6백만원보다 2% 증가된 66억7천7백만원으로 6천677만원이 모일 때 마다 청주상당공원 입구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계가 1도씩 올라간다.

이날 행사는 충북모금회 명예회장이기도 한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과 자원봉사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도내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캠페인인 만큼 사회복지기관단체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특히, 금번 출범식에서는 희망2018나눔캠페인의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을 염원하며 KT&G충북본부(이홍주 본부장)에서 3천만원, 충청에너지서비스(주)(김현호 대표이사)에서 3천만원, ㈜충북소주(조성호 대표)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1만장을 각각 충북모금회에 기탁하

였다.
이명식 충북모금회장은 소독의 양극화가 깊어짐에 따라 다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들이 많아졌다. 그 어느 때보다 금번 캠페인에 충북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충북모금회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4일부터 시군 사랑의온도탑 제막식 및 성공모금행사를 진행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은 충북모금회 홈페이지(http://cb.chest.or.kr)를 통해 입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충북모금회 사랑의 계좌나 방송사를 통해서도 기부참여를 할 수 있다.
기부금은 국제청 연말정산서비스의 자동연계되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회의 충북서 개최

15개 여성정책 연구기관 등 100여명 참석 양성평등 노력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연구기관 설립 20주년을 맞아 2017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회의 및 공동포럼이 충북 미래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전국 시·도 여성정책 연구기관들의 상호 교류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국여성정책 네트워크는 해마다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정책회의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지난 4월 출범한 충북여성재단 설립을 축하하기 위하여 충북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날 오후에 개최된 포럼 개회식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충청북도지사 등이 참석하여 행사 개최를 축하해 주었으며 전국 15개 여성정책 연구기관, 지역 여성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축사를 통해 시·도 여성정책 연구기관 대표 여러분

충북 방문을 환영한다 며, 도에서는 충북여성재단과 협력하여 양성평등과 여성의 경력개발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학실(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좌장이 진행하였으 며, 센터가버너스 운영 전략 , 지방분권시대 성평등정책 진단과 처방 , 지역 여성정책의 역할과 일 가족양립 정책 확산방안 모색 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벌이며, 지방분권시대 지역여성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미래비전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충북여성인권상담소 출범, 청주여성단체 청소년쉼터 등을 방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충북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5배 증가

현재 총 105개 기업 기관 선정
컨설팅인센티브 등 혜택지원

충북도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 선정 결과 신규 79개, 연장 25개, 재인증 1개 등 총 105개 기업 기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인증 기업 기관 수는 지난해 36개소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 3년간 가족친화인증기업이 5배 이상 증가하여 총 194개의 기업 기관이 가족친화인증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인증 기업 기관으로는 정보통신산업지원원, 충북대학교 병원, 충청북도중주요양원, ㈜정식품, ㈜에스티세미콘 등이 있으며,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은 충북도청을 비롯한 10개시군 등이 인증을 받았다.

충북의 가족친화인증 기업 기관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적극적인 홍보 및 1:1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실시,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 지원에 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충북도는 총 40개의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전국 최대 인센티브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중소기업 경영인정자금 이자보전지원, 휴양림 등 시설 우선 예약, 사용자 감면, 영화관람료 및 제과점 할인 등이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컨설팅과 프로그램 개발, 인센티브 추가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 은 근로자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 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민생공무원 등 공공 일자리 81만명 확충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충북 청주에서 일자리 해법, 충북서 길을 찾다 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다.

11월 28일 청주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C&V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이은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시종 충북지사,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과 함께 지역 노사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중점 과제 중 하나인 지역 일자리 창출 추진을 위해 지역별 대토론회를 열고 있다. 지난달 25일 강원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여성 친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

일자리와 청주서 대토론회 “여성·진천 혁신도시 중심 신성장 일자리 거점 육성”

신성장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할 것 이라며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충북 지역 일자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노 바이어 등 첨단 산업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거점 가산단을 조성하는 한편 2022년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대토론회에서 공공 일자리 81만명 확충 계획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현장 민생공무원 17만4000명, 보육 요양 등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34만명,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직간접 고용 30만명 등이다.
2022년까지의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총원 계획도 제시했다. 경찰과 교원 등 국가직은 10만500명, 사회복지와 소방 등 지방직은 7만3500명을 뽑기로 했다고 일자리위원회는 전했다.
이 지사는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은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 이라며 충북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생산직 일손보사 사업은 모범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개인별 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생애주기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경비 제공·서비스연계를 통한 맞춤형생계형생활 서비스 지원

신청 대상은?

- 장애등록이 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당사자
- 등록 발달 장애인 보호자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신청 방법은?

- 주시 주민센터
-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주민센터)
- 신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제출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지원절차는?

권리구제사업은?

-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현장조사·현장방문
- 피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 발달장애인이 수사기관 및 재판 출석시 형사·사법절차 지원

신고 후 처리절차

1. 신고방법
- 권리구제 대표번호 ☎ 1522-2882
-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43)716-2160
- 경찰신고 ☎ 112

2. 처리절차
- 전화상담
- 현장 방문 및 조사
- 보호조치
- 형사 사법절차 지원

3. 경찰서
- 권리구제 대표번호 [1522-2882]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에게 자립적인 사회생활과 법률 행위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사업
- 후견심판청구 절차, 후견인 연계, 후견절점 등 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도 지원

지원 절차

- 1 공공후견서비스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2 대상자 선정 | 시·군·구청
- 3 후견인후보자 선정 | 시·군·구청
- 4 후견심판 청구준비 | 시·군·구청 /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5 후견심판 청구 | 시·군·구청
- 6 후견심판 | 관할 가정법원 등

충북도 청년일자리체험지원 추진

내년 1월까지 지역출신 대학생 100명 대상 우수 중소기업 50개사 참가... 일자리 체험

충북도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충북 출신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고향 우수중소기업에 직무훈련과 연계한 청년일자리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겨울방학기간 동안 충 북 출신 대학생들이 고향 중소기업에 본인의 전공과 연계하여 취업 전 직무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북 출신 대학생 100명이 참가하고 도내 우수중소기업 50개사가 청년들을 위해 청년일자리 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내 2,800여 기업회원을 보유한 청주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청년참가자 100명과 기업 50개사를 모집하고 사전 참가자 교육을 실시한 후 21일부터 2018년 1월 19일까지 1개월간 청년일자리 체험을 진행한다. 한편, 이 사업은 충북 출신 대학생이면 졸업예정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참가 할 수 있고 청년일자리 체험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노동관계법규 위반사항이 없

는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어느 기업이나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한 기업에는 청년일자리체험에 필요한 관련 사업비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금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내년 추진 될 수 있도록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청년들과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검사보다 사후 검사에서 고위험군(48%)과 저위험군(45%)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자살예방교육과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44회, 1373명) 제공, 모니터링(63회, 1876명) 및 개별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의 결과로 풀이되며 이에 따라 고위험군의 숫자가 줄어 들고 보금마을에서 자살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로 이어졌다.

보은군 생명존중사업 추진 '성과'

올해 자살사고 1건 없어 매월 자살예방 문자 발송

보은군이 추진하는 생명존중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11월 30일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으로 추진한 자살예방사업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29일 보은군보건의료회의실에서 23개 마을, 70명의 생명사랑지킴이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 진행 및 결과를 보고하는 생명존중사업 평가회를 열었다.

군은 지난 3월 생명보존사회공헌재단과 협약하고 11개 읍, 면, 2개 마을 930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군보건소와 보은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실시해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했으며 매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문자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보금마을을 대상으로 벌인 사전 사후 우울척도 검사 결과 사전



2017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 평가회

진천군 복지행정 우수성 빛나

기초생활보장분야 종합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진천군이 2017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맞춤형 동네복지 정책의 특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일 진천군에 따르면 군은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사회복지행복마을 우수지자체로 보건복지부장관 기한 표창을 받는데 이어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타 시 군 과는 차별화된 복지정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군은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생활보장분야 종합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900만원 포상금을 받게 된다.

진천군은 농촌이라는 열악한 복지 현실을 극복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신규수급자를 발굴하기 위해 행복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구석구석 동네복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완화 등에 지방생활보장심의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한 데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진천군은 7개 읍 면에 맞춤형복지팀을 100% 설치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활발히 전개한 결과, 기초생활보장분야 외에도 의료급여분야와 기초교육급여 지원 분야 등 종합적인 복지정책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직원들의 호응도 높고 있다.

송기섭 군수는 맞춤형 동네복지 진천군 복지정책 핵심이다며 찾아가는 복지실현에 열정적으로 노력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군민들이 체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진천군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19회 기부식품 제공사업 제천대회 개최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후원자 등 200여명 참여 유공자에 감사패 표창장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길)는 개인과 기업의 지속적인 식품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11월 30일 제천명성유유에딩컨벤션에서 제19회 기부식품 제공사업 제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부식품 제공사업 관련 기업 관계자와 종사자, 시설 운영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을 한 해 기부식품에 관심을 가져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밸리댄스 공연과 제천어고 실로암중앙단의 축하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1부 기념식과 2부 감사의 밤이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롯데제과와 원주지점 제천영업소를 비롯한 유공자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이 전달됐다.

또한 2017년도 운영현황 보고와 2018년도 정책 및 추진방향 설명하는 등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가졌다.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올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등을 통해 제천지역 소외계층에 전달된 기부식품제공 원산금액은 지난해에 이어 10억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롯데제과와 원주지점 제천영업소를 비롯한 유공자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이 전달됐다.

이후엔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박영길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기부식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 기부식품 나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1998년 창립된 사회복지 공익법인으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을 통해 기부식품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등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은군 생명존중사업 추진 '성과'

올해 자살사고 1건 없어 매월 자살예방 문자 발송

보은군이 추진하는 생명존중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11월 30일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으로 추진한 자살예방사업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29일 보은군보건의료회의실에서 23개 마을, 70명의 생명사랑지킴이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 진행 및 결과를 보고하는 생명존중사업 평가회를 열었다.

군은 지난 3월 생명보존사회공헌재단과 협약하고 11개 읍, 면, 2개 마을 930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군보건소와 보은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실시해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했으며 매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문자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보금마을을 대상으로 벌인 사전 사후 우울척도 검사 결과 사전

양성했으며 매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문자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보금마을을 대상으로 벌인 사전 사후 우울척도 검사 결과 사전

보금마을을 대상으로 벌인 사전 사후 우울척도 검사 결과 사전

괴산읍 7개 가정방문 요양기관 복지상담·사각지대 발굴 MOU

괴산군 괴산읍(읍장 최충원)은 11월 23일 괴산읍행정복지센터에서

관들과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런 협약을 통해 읍 면 복지허브화에 따른 괴산읍 권역(문풍면, 소수면, 불정면 포함)내 노인돌봄 요양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들과 상호 연계해 유기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더 많은 복지사각지대의 대

상을 발굴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충원 괴산읍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민 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의 숨어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모두가 행복한 연계해 유기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더 많은 복지사각지대의 대

소외이웃 '따뜻한 겨울나기'

충주 봉방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금 100만원 기탁

충주시 봉방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7회 봉방동시 릴레이 운동을 통해 모은 기금 100만원을 11월 30일 시에 기탁했다.

협의체는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이웃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위해 충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잡고 지난 6월 15일부터 봉방동시 릴레이 운동을 시작했다.

1000원의 소액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동참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시작 1주일 만에 100명의 기부자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당초 협의체는 봉방동 관내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위해 이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이 시작되자 관내 물품 타 읍 면 등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현재 가입자는 400명을 넘어섰다.

이에 협의체는 시민들이 모은 기금을 봉방동을 벗어나 충주 전체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위해 사용키로 했다.

이번 성금 기탁은 기금을 충주 전체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첫 걸음이다.

단양군 공무원 기본 포인트 30% 인상

단양군은 공무원 사기를 북돋우는 등 후생복지 위해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기본 포인트 30% 인상을 추진한다.

29일 단양군에 따르면 본연의 업무 외에 갖은 현안 업무 지원과 산불 구 제 역 근무 등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후생복지 강화 차원에서 단양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준 가운데 개인별 기본 포인트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군은 전 직원에게 기본 포인트 700점을 부여하고 있다. 군은 이 기본 포인트를 700점(70만원)에서 1000점(100만원)으로 300점을 인상한다는 방안이다.

군에 기본 포인트를 이같이 인상하면 연간 2억2500만원의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포인트를 사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다.

공무원은 전연에게 임원적으로 배정되는 기본 포인트에다 근무 연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적 변동 포인트를 부여받는다.

이 포인트는 해당 연도에 써야 하며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다. 군은 2007년 2월 관련 예규를 제정 시 행 하고 있다.



음성, 투표취약계층 선거체험행사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13일, 27일 음성노인복지센터, 음성군노인복지관과 음성

군장애인복지관에서 투표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를 중심으로 한 선

거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와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강연을 하고 이어 곧바로 사전투표 모의체험을 실시했다.

선거체험행사에 참여해 모의투표를 한 노인, 장애인들은 한결같이 투표를 몸소 체험하니 실제 선거에서도 당당히 투표소를 찾아가 귀중한 한표를 행사할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선거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과 같이 투표취약계층의 유권자들을 꾸준히 찾아가 평소 투표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징검다리사회적협동조합 국토교통부장관인가번호 제2015-3호
징검다리 협동조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충북청주 17-29-09

시설물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안전한 삶의 터전 실현

징검다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기업,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일반 시설 하자보수 및 기능보강)

징검다리사회적·일반협동조합 : www.jinggum.co.kr
상담 및 문의전화 : 043)224-6464 / 043)223-4411

중소기업 사업장에 최저임금 보조

내년부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까지 보조금 지급 최저임금 인상 대비 영세기업 인건비 부담 덜어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11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년간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2조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 부족분을 지원한다.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해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 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보험 신규 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준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한 시적으로 보험료를 50% 줄여주고 시급 기준 최저임금의 1.2배를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해준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편 토론회 성료

한사협, 국회의원과 공동주최 자격증 필수 등 개편방안 논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날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오세재, 정춘숙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100만 사회복지사 시대, 전환점을 모색하다 라는 주제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편 토론회를 주관해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의 뜨거운 열기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된 사회복지사 3급 폐지와 자격제도 강화에 대한 꾸준한 현상의 요구라는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의 뜨거운 열기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된 사회복지사 3급 폐지와 자격제도 강화에 대한 꾸준한 현상의 요구라는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토론회의 주제발표에 나선 노홍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자격제도는 사회적 승인 및 전문성 발달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를 강조하며,

자격소지자 과잉 공급과 전문성 확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강화 및 개편방안을 설명했다.

자격제도 강화방안으로는 자격증 필수 및 선택 교과목 확대, 현장 실습시간 확대 등을 주문했다.

또한 자격제도 개편방안으로는 사회복지 2차 현상으로 불리는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별영역에 사회복지사법에 규정함으로써 전문 영역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장기적으로는 전문사회복지사 도입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으로는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수월과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영 화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김 영 화 원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황 승 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과장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응급실 출입 보호자 수 1명으로 제한

보건복지부, 법률안 개정·시행 응급환자 진료·감염 예방코자

앞으로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는 환자당 1명이다. 다만, 소아 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개별적인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 2명까지 가능하다. 또 응급실 감염 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발 열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보호자로서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을 교부하고, 보호자 명명 출입 목적 입실 및 퇴실

일시 연 락처와 발 열 기침 여부 등을 기록 관리해 1년간 보존해야 한다. 환자들이 응급실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방안도 마련했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응급실 체류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응급실 내원환자 대비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측정해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시정명령 및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대응 체계 강화도 함께

진행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이나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 및 최선의 의료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에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의 관리, 재난의료 지원조직의 구성 및 통솔체계 유지 등이다.

이들 센터는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난의료 지원팀(DMAT)을 3명 이상 의무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응급실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함에 따라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에 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연령제한 폐지하라"

장애인단체, 현행 관련법 개정 촉구 위해 국회서 기자회견



11월 8일 장애인단체가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

기중장애인생활향상센터협의회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활동지원 서비스의 연령제한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만 65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들 단체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의지없는 상관없이 활동지원 서비스가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된다면서 이로 인해 최대 월 31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활동지원 연령제한은 주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고령의 중증 장애인을 무책임하게 버리는 중증장애인만 고려장 아니라 활동지원 서비스의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하라고 고 의했다.

폐지넷 출범 '폐지수집 노인' 문제해결 나선다

서울서 포럼 열고 연구발표 등 문제해결 방안 논의

현재 전국 175만명으로 추정되는 폐지 수집 노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마다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기초생활수급 노인보다 비수급 노인이 많아 실질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이 폐지 수집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폐지 수집 노인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폐지넷)가 이러한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대응하고자 1일 서울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마련하고 폐지넷 출범식도 함께 개최했다.

포럼은 노인의 삶과 폐지수집이란 일, 끄트머리에 선 사람들(소준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을 시작으로 동적지역 폐지수집 노인 당사자 욕구조사 결과발표(이준희 대방복지관 과장), 폐지 수집 노인 관련

조례 제정 사례발표(이한구 인천시의회 의원), 노란손수레 사례발표(현대제철 고선정 차장), 폐지넷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활동 소개(아름엔워십, 노년유니온, 희망동네, 마을발전소, 실버자원협동조합, 러블리페이퍼, 끌림, 그린메이커, 사인디얼, AF6_페공방)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폐지넷 기구인 공동위원장(러블리페이퍼 대표)은 이번 행사를 통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직 간접적인 연구 및 활동 등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또



한 향후 이와 같은 활동을 지속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출범식까지 함께 한 것 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내년예산 63조원 확정

기초연금아동수당 감소 자살예방 강화예산은 증가

6일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 본예산 57조6628억 원보다 9.5%(5조4927억 원) 증가한 63조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신설된 아동수당과 인상된 기초연금 등의 지급 시기가 내년 9월부터 늦춰지면서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당초 정부안(64조2000억 원)보다 약 1조1000억 원이 줄어들

었다. 분야별로는 총 59개 세부사업이 정부안 대비 증액(4266억 원)되고, 19개 사업은 감액(1조5128억 원)됐다.

기초연금은 9조8400억 원에서 9조1229억 원으로 7.3%(7171억 원) 감소했고,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층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하기로 한 내용까지 포함해 1조1009억 원에서 7096억 원으로 35.5%(3913억 원) 감소했다.

치매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예산은 2332억 원에서 1457억 원으로 37.5%(874억 원) 감

액됐다. 이 밖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에서 400억 원,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서 30억 원 등이 줄어들었다.

북한 귀순병사의 수술료 관심이 모아졌던 중증이상전진치료 체계에 지원이 확대된다. 당초 정부안 400억4000만 원 대비 50.2% 증액된 601억4400만 원이 편성됐다.

또 응급의료전용헬기(터렛헬기) 1대를 신규 배치하는데 11억 원이 추가됐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게이트키퍼를 50만 명 양성하고,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약 5만4000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살예방 강화 예산이 58억 원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고용부, 일부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전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부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장애인 고용장려금만 챙기는 사업장들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현재 상시 근로자의 2.9%를 장애

인으로 고용한 뒤 추가로 채용하는 회사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해당 중증 장애인 여성의 경우 월 60만원, 경증 여성과 중증 남성 월 40만원, 경증 남성은 월 30만원의 고용 장려금을 받게 된다.

나눌수록 행복해 집니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참여해 주세요!

- 1. 봉사단 모집대상**
 - 1004지역사회봉사단 : 재능을 가지고 있는 봉사단체나 동아리(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 베이비부머봉사단 : 1955~1963년생의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월 2회 이상 활동 가능)
- 2. 봉사단 기준**
 - 5인 이상(VMS 가입)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 3. 봉사활동 분야**

구분	내용
기술·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공연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행정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입부보조 등
교통·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품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 4. 지역사회봉사단 목적**
 -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국민복지증진
 - 전문봉사인력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서비스 질 제고
 -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등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전문성·지속성을 갖춘 새로운 사회복지 자원봉사 패러다임 구축
- 5. 봉사단 혜택**
 - 활동비(재료비 및 필요물품 구입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등
 - 봉사단체 홍보
- 6.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남형우 코디네이터
 - 전화 043) 234-0840
 - 홈페이지 www.cwin.or.kr

2017년 충북 어린이집원장 역량 강화 워크숍

직무연찬 통한 역량강화...어린이집 간 정보 교류 목적

충청북도내 도내 어린이집원장들의 직무연찬을 통한 역량강화 및 어린이집간 정보교류를 위해 2017년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을 1일~2일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 첫째 날에는 제1회 the보육나눔기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과 함께 열린어린이집 등 보육전반에 대한 체험수기 발표(7명), 이미지로 승부하는 서비스 리더십 교육, 보건복지부 관계자로부터 내년도 정부 보육정책 방향 및 운영계획을 듣고 질의응답 등 토론의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발전에 기여한 어린이집원장 등 25명에게 도

지사 및 도의장 표창 수여 등 공식행사로 진행되었다.

또한, 둘째 날에는 그간의 스트레스를 풀고 단합과 화합을 위한 제천 지역 탐방으로 힐링 시간을 갖는 등 일차고 뜻 깊은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되어 어느 해 보다 만족했다는 평가이다

이시종 도지사는 영유아 감소로 운영난에 시달리며 저임금과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처우속에 있는 보육교직원들을 생각하면 도지사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사를 표하며, 앞으로 도내 5만여 아동들이 건



2017년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이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시종도지사가 격려사를 하고 있다.

전화가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살피 주기를 바라며, 내년도에는 최저임금 충족 등 영유아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도에서도 함께 노력하

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1,191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며, 이들은 49,366명의 영유아 보육에 힘쓰고 있다.

청주교구 장기요양시설 연합 제1회 포럼

존엄한 입증의 다양한 시각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모색

청주교구 신하 8개 장기요양기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시설 입소자들의 존엄한 입증 문제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교구 내 가톨릭 장기요양시설 8개 연합은 11월 30일 오후 청주 가톨릭 청소년센터 합계합동홀에서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존엄한 입증을 위한 준비와 과제 주제로 제1회 가톨릭 장기요양기관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설 입소자의 죽음을 위한 기관 종사자의 태도를 진단하고, 연명의료결정의 의미를 공론화하는 시간이었다.

교구 총대리 강희성 신부, 남창현 충북 정부특별보좌관 등 교회 안팎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장기요양 시설 관계자, 시설 입소자 가족 등 150



청주교구 신하 8개 장기요양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존엄한 입증 문제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여 명이 참석한 포럼은 정재우 신부(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발제를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 4명이 참여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정 신부는 좋은 입증 돌봄을 위하여 주체 발제에서 생의 말기에 관한 가톨릭 윤리 내용을 살피고 우리 사회의 생의 말기를 둘러싼 윤리 문제는 말기환자가 좋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여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입증 돌봄의 모델을 마련하고 생명 존중, 전인적 돌봄 필요성 등 성

찰을 통해 가톨릭교회 정신이 속화되도록 종사자들을 윤리적으로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신부(매곡고등학교교장)가 진행한 토론에서는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입증 돌봄 현황과 과제(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원장 이인자 수녀), 좋은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대전대 박해미 교수), 호스피스 완화돌봄의 측면에서(지생명원 김도봉 원목실장), 연명의료법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추진과제(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원) 등 내용이 발표됐다.

제천 학대피해아동쉼터 수탁기관 선정

(사)충북지역 복지개발회 선정

제천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수탁기관에 (사)충북지역복지개발회를 선정했다.

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운영 법인을 모집한 결과 정량(40점) 정

성(60점) 평가를 거쳐 이같이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려면 필요한 인력 운영비 등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종사자는 시설장 1명, 보육사 3명, 심리치료전문인력 1명 등 5명을 기

준으로 한다.

이번에 수탁기관에 선정된 충북지역복지개발회는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5년간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맡아 운영한다.

충북지역복지개발회는 앞으로 시와 별도의 협약을 하고 공중 질치를 이행한다. 이곳에서는 피해아동 보호와 속식 제공, 각종 생활 지원과 상담 치료, 교육과 정서 지원 등을 한다.

충북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연수 성황

그룹홍 종사자 238명 참석

충북아동복지협의회(회장 권현숙)는 11월 15일 제천한방생명과학관에서 아동복지시설 및 그룹홍 종사자 2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충북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연수를 성황리

에 개최하였다.

충북아동복지협의회 권현숙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연수를 통해 종사자들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종사자연수는 매년 아동복지시설 직원의 역량강화 및 유대감 증진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아동복지분야 유망자 표창 및 아동복지시설조사자 수기 및 사진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특강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아동복지정책 및 이해, 건강과 영양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제 89회 충북사회복지포럼 개최

아동센터 운영 등 주제로 아동서비스 향상 대안 제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심의보, 이하 협의회)는 7일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충북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센터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89회 충북사회복지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충북지역 지역아동센터 운영 표준프로그램 개발 연구 주제를 도 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담당자, 대학생 등이 함께 하여 토론과 의견을 공유했다.

김현진교수(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충북지역 지역아동센터 운영 표준프로그램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심의보(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나동석교수(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선영교수(충청대학교 아동보육학과), 윤의식회장(청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토론을



제89회 충북사회복지포럼이 12월 7일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통해 청중들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현진교수는 충북의 경우 처우 개선비와 시설개보수비, 일부 프로그램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프로그램비의 경우 전국 평균지원금 보다 약 130여만 원이나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프로그램의 양적 증가보다는 영역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정보 공유를 위한 강사 및 전문 자원봉사자 풀을 구축해야 한다. 며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시에는 사회화를 위한 인성과 예절 등의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야 하며, 공동체 생활을 성공적으로 직을하기 위한 사회적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고 주제 발표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심의보회장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협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매년 변화하는 사회복지패러다임, 사회복지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사회복지포럼을 통해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있다.

신노년 문화 '청춘은 바로 지금 콘서트'

1-3세대 인생 공유 재능나눔 다양한 신노년문화 방향 제시

청주가경노인복지관(관장 정은경)은 11월 29일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별관 2층에서 에버그린 봉사단이 기획한 '청춘은 바로 지금(청바지) 콘서트'를 실시하였다.

청바지 콘서트는 2016년 청춘토크콘서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대학생, 장애 청소년 등의 교류를 통해 1-3세대의 인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재능나눔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영봉사단과 연계하여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도 하였다. 단순한 문화 공연 제공이 아닌 본인들이 가진 문화적 재능을 나눔과 노년들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교류의 장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신노년문화를 제시하였다.



11월 29일 청주가경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청춘은 바로 지금(청바지) 콘서트에서 노인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에버그린 봉사단의 박상호 충북 아동청소년포럼 공동대표는 청바지 콘서트를 통해 노인과 청년세대의 소통, 재능나눔 봉사단과의 연계 등 지역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노인복지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 전했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의 시니어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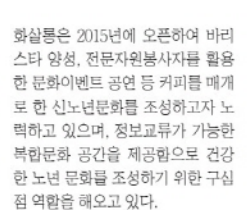
호실들은 2015년에 오픈하여 버리스타 양성, 전문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문화이벤트 공연 등 커피를 매개로 한 신노년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정보교류가 가능한 복합문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 위한 '스(Study)펀(Fun)지(地)' 개소

청주시 꿈드림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 개소 및 운영

청주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하 청주 꿈드림)은 지난 10월 31일 사단법인 유스투게더의 공간 확보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청소년 전용 활동공간 스핀지 개소식을 가졌다. 스핀지는 배움을 나타내는 Study(스터디)의 스와 즐거움을 나타내는 Fun(펀) 그리고 공간을 표현하는 지(지)의 합성어로 배움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당일 개소식을 받아 마련한 청소년 전용 활동공간 스핀지 개소식을 가졌다. 스핀지는 배움을 나타내는 Study(스터디)의 스와 즐거움을 나타내는 Fun(펀) 그리고 공간을 표현하는 지(지)의 합성어로 배움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당일 개소식을 받아 마련한 청소년 전용 활동공간 스핀지 개소식을 가졌다.

청주 꿈드림은 지난 10월 31일 청소년 전용 활동공간 스핀지 개소식을 가졌다.



청주 꿈드림은 지난 10월 31일 청소년 전용 활동공간 스핀지 개소식을 가졌다.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자 모집

■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 사업이란?

충북도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심리정서 프로그램, 리더양성 소모임 지원 프로그램, 돌봄종사자 네트워크 구성, 고충상담 및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1. 모집대상 - 충북도내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2. 사업기간 - 2017. 9. 1 ~ 2018. 8. 31
3. 사업목적 - 돌봄종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업무환경을 위한 역량강화 및 권익향상을 통한 인식개선 및 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4. 프로그램별 안내

프로그램명	집단상담	호스피스교육	미술치료	웃음치료	의사소통교육	소모임 개발 및 지원
정원/회기	17명/4회기	17명/4회기	8명/6회기	30명/1회기	30명/2회기	10명/9회기

5.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임미정 사회복지사 T. 043)234-0840

6. 지원 -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년 전체 예산 429조원 확정... 복지는 146조원

2018년 예산안이 12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 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0.1조원 증가, 총지출은 △0.1조원 감소
- 총지출은 정부안(429.0조원) 대비 △0.1조원 감소(당역 △4.3조원, 증액 4.2조원)한 428.8조원

I. 재정총량

1. 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소폭 증가, 총지출은 소폭 감소

○ 총수입은 정부안(447.1조원) 대비 0.1조원 증가한 447.2조원
○ 총지출은 정부안(429.0조원) 대비 △0.1조원 감소(당역 △4.3조원, 증액 4.2조원)한 428.8조원

2.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

○ 관리재정수지는 △28.5조원(GDP대비 △1.6%)으로 정부안 대비 0.1조원 개선
○ 국가채무는 708.2조원(GDP대비 39.5%)으로 정부안 대비 △0.7조원 감소

II. 주요 국회 중점내역

1. 일자리 지원 및 민생 안정

1) 일자리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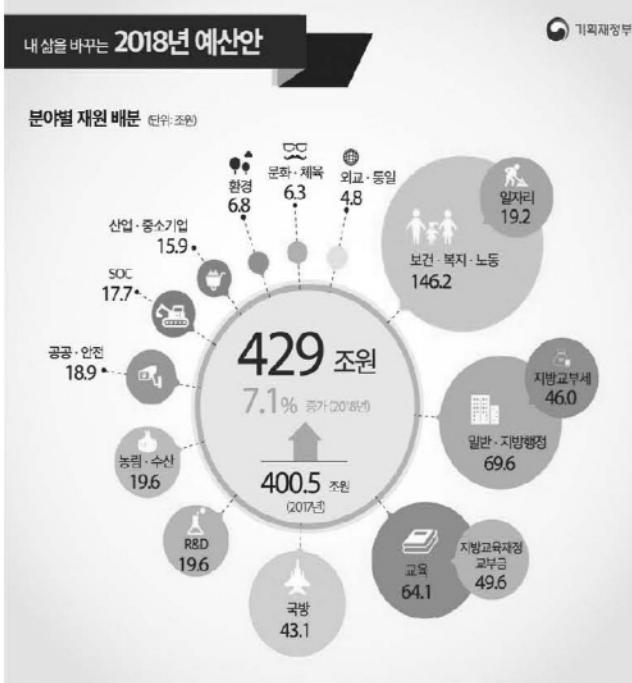
○ 일자리 질 개선: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본운영비 지원 확대
- 요보호아동그룹홈 및 하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인상 지원
-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10만원 지급 등 월급여 인상 지원
○ 일자리 창출: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를 늘려 장애인활동보조인 일자리 확대(+1,700명)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병행하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1,911억원)
-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 지원(신규 90%)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확대 유도

2)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 확대

○ (영유아) 영유아보육료 조기 인상('18.3월→1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확대(+912억원)
○ (청소년) '23년 세계 장애대학생 대회 준비를 위한 신규 지원(+44억원)
○ (어르신) 경로당 및 입원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확대
-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생활을 위해 6만3천여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극비 지원(+321억원)
-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을 위해 국외 전시 등 기념사업 확대
○ (장애인) 교육여건 개선 및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확대 및 특수학교(서울맹학교) 노후시설 개선
- 고용촉진을 위해 맞춤형·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각 1개소 신설
○ (유공자) 의료서비스 확대 및 입시정부기념관 지원 강화
-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보훈요양원(전주) 신규 건립 지원(21억원, '20년까지 총 360억원)
-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선양사업(신규 2.5억원) 및 입시정부기념관 조속한 건립 지원
○ (농어민)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화 및 축산물 안전과 식물관련 지원 확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실습시설 설치 및 스마트농업 현장 확산을 위한 데스크베드 지원 확대
- 해외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식물관련 추가 지원
○ (소상공인) 전통시장 화재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확대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확대

3) 주거·의료·교육 서비스 확충으로 삶의 질 개선

○ (주거)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및 인차인 보호



일자리·경제활성화·민생안정 등 중심으로 투자확대 주거·의료·교육 서비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

- 저소득층 거주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시급한 개·보수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 확대
- 8.2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임대주택 및 임대차체계 시스템 구축비 반영(+43억원)
○ (의료) 중증외상의료 및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 외상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경력의상센터 지원 확대와 응급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확충(+212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차매국가책임제 등의 차질없는 이행 뒷받침
○ (교육) 한민족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재외동포 교육 강화
- 웨이하이에 한국학교를 신설(+11.3억원)하여 중국학교 한국부 운영 중단에 따른 교육공백 해소
- 교과서·교재 개발·보급 및 국제화대학 확대, 통합포털 구축

2. 경제활력 제고

1)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

○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에 1.3조원 확대
○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신호·봉선) 개선 지원

2)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확대

○ 신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기반 확충 지원
○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 확대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혁신모델펀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지원
○ 민간부자를 유치한 기술창업팀에 대해 R&D자금을 연계 지원 하는 TPS R&D 지원 확대

3. 국민 안전 확보

1) 지진 대비 지원 확대(+1,279억원)

○ (지진 예측가능 강화) 한반도 지하 단층구조 조사, 해저단층 지도 제작 등 지진 예측능력 강화
○ (지진 대응역량 확충) 전문인력 양성, 지진 대응역량 강화 등 지진대비 인프라 확충
○ (내진보강 확대) 국립대학, 도시철도, 정부청사 등 내진보강 추가 지원

2) 방위력 증강 및 북무어건 개선(+404억원, 전년대비 +7.0%)

○ (북·핵·미사일 위협대비) 3축 체계 조기구축 지원 확대
○ (대북역제 전력보강) 북 장사정포 대응 및 대함·대잠 작전능력 보강 등을 위한 신규전력 추가반영 및 부차 확대
○ (북무어건 개선) 軍 사격장 안전시설 보강 및 초급군부 축소 예산 절척 확대

3)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 (살충제 계란 방지) 계란 수거검사 재료비 지원 확대 및 잔류물 질 검사 분석·현장점검 장비 확충
○ (유해 생리대 방지) 의약외품 수거검사 품목 수 및 수거·품질 검사 지원 확대

4)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및 범피해자 보호 강화

○ 구로 분배농지사전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에 대응하여 국가배상금, 행사보상금 대폭 확대
○ 스마일센터(강력범죄피해자 보호), 헤비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 보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판단) 등 범피해자

보로시설 확충

5) 환경 인프라 구축 확대

○ 수질개선 및 수해 예방 효과가 높은 하수도 투자 강화
○ 지진·태풍 등에 취약한 저수지, 방조제, 국가어항 등 개보수 사업 확대

구분	17예산		18예산		증감	
	본예산(A)	경우안(B)	기준(C)	국회안(D)	17대비(C-A)	증감율
총지출	400.5	429.0	428.8	428.8	△0.1	25.3
1. 보건·복지·교육	129.5	146.2	144.7	144.7	△1.5	15.2
2. 교육 (교부금 제외)	57.4	64.1	64.2	64.2	0.0	6.8
3. 문화·체육·관광	6.9	6.3	6.5	6.5	0.1	△0.4
4. 환경	6.9	6.9	6.9	6.9	0.0	△0.0
5. R&D	19.5	19.6	19.7	19.7	0.03	0.2
6. 안전·중소·에너지	16.0	15.9	16.3	16.3	0.3	0.2
7. SOC	22.1	17.7	19.0	19.0	1.3	△3.1
8. 농림·수산·식품	19.6	19.6	19.7	19.7	0.1	0.1
9. 국방	40.3	48.1	48.2	48.2	0.04	2.8
10. 외교·통일	4.6	4.8	4.7	4.7	△0.1	0.2
11. 공공서비스·안전	18.1	18.7	19.1	19.1	0.2	0.9
12. 일반·지역행정 (교부금 제외)	63.3	69.6	69.0	69.0	△0.7	5.6

<출처: 기획재정부>

어머니가 아프신데...
어떻게 하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아!

충북복지넷

- 복지서비스 검색
- 가까운 복지기관 찾기
- 복지기관 평가정보까지 한눈에

충북복지넷 www.043w.or.kr
검색창에 충북복지넷을 검색해보세요

복지 시간

2017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복지분야>

전국 평균점수 48.91 작년보다 0.21점 상승 소폭 완화

<교육분야>

전국 평균점수 67.84 작년보다 2.69점 상승 조금 완화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조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 분석해 지역장애인의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래의원과 시도의회 17명의 광역의원이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조사결과발표는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누어 수준을 평가하였다.

본 조사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 자치단체 및 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으로부터 지난 3월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다.

복지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지원 등의 5

개영역 39개 지표별, 교육분야는 10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지분야 결과]

2017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분야 조사결과 지난해에 이어 복지격차가 소폭 완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8.91점으로,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0.21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복지 분야 우수 지역은 대전, 충북 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세종, 경남, 전북, 전남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6년 연속 우수 등급에 포함되었고, 충북은 지난 해 양호 등급이었으나 올해 우수등급으로 상향되었다. 지난해 우수 등급에 6개 지자체가 포함되었던 점과 비교하면 우수 등급이던 서울이 보통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했던 경북이 올해 양호 등급으로 상향, 지난해 우수 등급이던 서울이 보통으로 하락한 점이 눈에 띄어 불만이다.

[교육분야 결과]

장애인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점수가 67.8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결과에 비해 2.69점 상승하였다. 2014년 70.63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하락하던 지역 교육격차가 조금 완

장애인 복지분야 17개시 도 별 결과

Table with 4 columns: 최고 61.81점, 전국평균 48.91, 최하 39.19점. Rows: 우수(2), 양호(7), 보통(4), 분발(4). Locations: 대전, 충북;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기, 경북, 제주; 서울, 부산, 인천, 충남; 세종, 경남, 전북, 전남.

장애인 교육분야 17개시 도 별 결과

Table with 4 columns: 최고 82.06점, 전국평균 67.84점, 최하 62.24점. Rows: 우수(1), 양호(9), 보통(2), 분발(5). Locations: 울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남, 경북, 전북, 제주; 충북, 경남;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전남.

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교육 분야 우수 지역은 울산 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전남으로 나타났다.

울산, 경남은 최근 5년 연속 우수 등급에 포함된 반면 서울은 5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교육 분야는 지자체 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 충북, 경남, 전남 지역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올해 2017년 지표에서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을,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이 포함됨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2개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

북, 경북, 대구)의 점수가 지난해에 비해 향상되었고, 5개 지자체(세종, 강원, 충북, 전남, 경남)의 점수가 하락하였다. 그 중 울산, 전북, 제주가 2년 연속 향상되었으며, 충북의 경우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지속적으로 벌어지던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 간 장애인 복지 교육 격차는 근소하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시적인 지역별 격차 완화 가 아닌 지속적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의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시·도 간 장애인 복지 교육의 수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의 의지와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시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각 시·도 지 사 및 시·도 교육청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목표와 과제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이행과 점검을 통해 수준 향상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셋째,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와 교육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의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와 민간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국회의원 김성희 / 국회의원 나경원/국회의원 권미혁 / 국회의원 김순래 / 17개 시·도의 의원

칼럼 Column

성숙한 기부문화를 위해



박상덕 충청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팀장

는 의문이 들었다. 이 아이의 기부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 위해 아이 스스로 다짐을 하고 차곡차곡 용돈을 모았거나 혹은 부모님의 교육 철학과 교육 방법의 일환이었을 지 모르겠다. 동기가 어떠한지 사진 한 장에서 느껴지는 훈훈함은 별다른 설명이 없더라도 모두가 공감하기에 충분할 듯하다. 단순히 모금에 참여하는 기부가 아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일장간 노력하고 그 결실을 기 부라는 방법으로 실현한 나눔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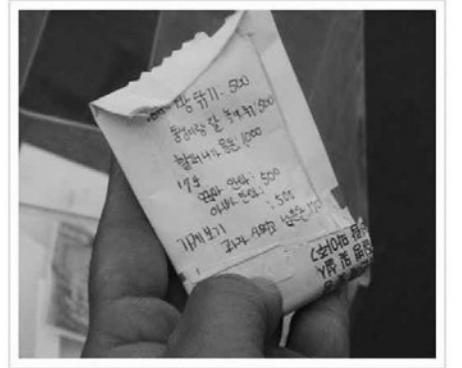
두 달 전쯤일까? 인터넷 포털에 쓴 싸이월드 에 관한 기사를 보다 우연히 시작된 추억 찾기. 설레는 마음마저 들었다. 아이들과 페스워드 찾기를 통해 어렵게 로그인하고, 이런 저런 추억을 소환해내는 11년 전 사진들을 보며 감상에 젖어 있을 때 문득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어느 모금현장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방 댁기 500원, 동생이랑 놀아주기 500원, 엄마아빠 안마 500원, 과자 사먹고 남은 돈 170원 등 이런 저런 심부름으로 얻은 용돈 목록이 적힌 봉투가 있었다.

아마도 이 사진을 보고 꽤나 오랜 시간동안 생각이 잠겼던 것 같다.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가입국 중 2위라고 하고, 지난 10년 동안 모 금회를 통해 집권에 충북의 기부 규모는 40억대에서 100억대를 훌쩍 넘도록 성장했지만 과연 나눔문화도 그만큼 성숙했을까 하

는 계계를 통해 나의 것을 나누고, 그것이 잘 전달되거나 잘 쓰이는지에 대해 감사자의 역할까지 하는 좀 더 적극적인 기부가 활성화 될 때 더욱 성숙한 기부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다.

영국의 수상 처칠은 우리는 일함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 간다. 고 했다. 많은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적극적인 나눔으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오늘 보은군 순회모금 기부자 중 한명..^^ 이 아이 너무 예쁘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랄듯.. 오랜만에 접속한 싸이월드 홈페이지에서 발견한 사진.

정신건강



연현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며칠 전 뉴스에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먹을 것이 사라져 배민 앙상하게 남아있는 북극곰을 보았습니다.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를 걸어 다니는 모습은 우리가 광고에서 웃고 춤추는 북극곰의 모습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가슴이 참 아픈데, 북극곰은 인위워서 이렇게 힘든데 지금 우리는 몸도 좋고 마음도 추운 12월을 보내고 있네요. 2016년 겨울에 있었던

일은 하나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뉴스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랬다라 저랬다라 하지만 뭐하나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네요.

12월은 우리에게 매우 짧았던 한 해를 더 짧게 느끼게 해주는 달입니다. 정리해야 할 일도 많고 새해를 준비하는 적어도 많이 야근도 많은 데 몸도 마음도 춥다보니 출근하면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네요.

12월을 맞이하면서 올 한해를 정리하면서 좋은 순간도 있지만 있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아- 그 일은 기억에서 꼭 지우고 싶다. 내 일생에서 그 부분만 드러내고 싶다. 이러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개봉한 영화가 바로 이 순간을 소재로 만들었더라고요. 해리성 기억장애를 소재로 영화화 드라마는 곧잘 만들어 집니다. 해리성 기억 장애는 것이 정말 드라마나 영화를 드라마틱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기억상실이라고 하며 진부해 하기도 한... 그러나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해리성 기억 장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할 때 모르쇠로 나오곤 합니다. 부패한 정치인의 비리가 드러났을 때, 사소하게는 어린이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일단은 자신은 아무 것도 모른다고 발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어떤 일로 큰 상처를 받았을 때도 그 일을 모른 채 합니다.

그러나 해리성 기억 상실이란 특별한 뇌에 이상이 없이 심리적, 정신적 문제로 인해서 기억상실이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즉, 자신에게 중요한 정보에 대한 기억을 되새겨 보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혹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건망증과는 달리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저절로 발생한다 라기보다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천재지변 등 심리적 감당하기 힘들 때 주로 발생이 됩니다. 해리성 기억 상실은 두 가지 증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발생했던 일 중에서 부분적으로 기억을 못하는 경우, 두 번째는 특정한 인물과 연관되어 있는 일들에 대한 전부를 기억을 상실하는 체계적 기억상실이 있습니다. 해리성 기억 상실은 우울증을 동반하기도 하고 항상 몽롱해 있거나 감각이 둔해지기도 하고 회황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은 자해를 하거나 공격적 행동을 보이거나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이 동반되기도 하여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억 상실이라 부르

는 해리성기억장애는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의식이 억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성별 상관 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다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분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기억이 있나요? 매 순간 모든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또 망각이 없으면 우리는 아마 너무 많은 기억과 정보로 머리가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그 수많은 사건, 정보에서 가리고 가려서 우리의 뇌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슬픈 기억까지도... 오늘은 한 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행복했던 순간들을, 그리고 아팠던 순간들을, 분명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해리성 기억 장애

Advertisement for 'Lawyer's New Service'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featuring 'Free Lawyer' (무료 법률 상담) and 'Lawyer's Service Introduction' (법률서비스 안내). Includes details on services, contact info, and a list of service providers like 'Lawyer's Service Center' (법률복지센터).

이달의 법률상식

해외여행계약의 해제



원명안 변호사

Q. 저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 위하여 여행사와 패키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일주일 전 갑자기 일이 생겨 여행을 못가게 되었는데 이

러한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손해배상

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행 출발일 30일 전 해제 통보 시 계약금을 전부 현금 받을 수 있고, 출발 20일 전, 10일 전, 8일 전, 1일 전, 당일 각 순으로 여행 요금의 일정비율을 배상하는 방식으로 여행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여행자에게 1.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 기관 등의 파

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이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여행자의 3촌 이내 친척이 사망한 경우, 4.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여행 출발일 일주일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제 통보를 하였으므로 여행요금의 30%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나머지 계약금을 반환받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보 제공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 안내 및 참가자 참여기관 모집

사업명: 돌봄종사자 건강지원을 위한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
대상: 도내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돌봄종사자)
사업목적: 돌봄종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업무환경을 위한 역량강화 및 권익향상에 기여하여, 돌봄종사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돌봄서비스 향상
내용: 집단상담 프로그램, 미술치료 프로그램, 의사소통 교육, 소모임 개발 및 지원 등
진행일정: 2017.9 ~ 사업 종료 시 까지
신청기간: 2017.9 ~ 모집 완료 시 까지
비용: 무료
지원: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사회복지자협회] 2017년 대체인력파견사업 참가자(파견활동가) 모집안내

사업명: 2017년 대체인력지원사업
사업기간: 2017.1 ~ 12(예산소진시까지)
모집기간: 수시
제출방법: 양식 작성후 팩스(232-4413) 또는 이메일(cbsw@hanmail.net) 발송
활동기준: 항목 1개이상 충족한 자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②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③ 사회복지봉사 6개월이상 유(有) 경험자
④ 그 외 직종(조리사/운전직 등): 해당분야 자격을 갖춘 자(사회복지사실 경험자 우대)
참고사항
- 대체파견 기본(기초)교육 4시간 수료후 활동가능(교육일정 신청자에 한해 개별연락)
- 생활시설(노인/아동/장애인/노숙인 등) 보조업무 파견근무
- 파견근무기간: 최소 3월~20일 이내
- 제출양식: 충북사회복지자협회 홈페이지

지 협회소식 참고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신청안내

신청대상: 9~24세 학교 밖 청소년
신청기간: 12.31까지
신청방법: 청주시/서청주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검진비용: 무료
문의사항: 청소년전화 1388 또는 굼뜨림 홈페이지

[청주시] 2017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운영기간: 2017.1 ~ 12
운영시간: 매월 두 번째 주 월요일 (10:00~12:00/14:00~16:00)
상담방식: 일대일 대면상담
상담내용
- 시민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에 관한 법률상담
- 등기, 민사집행, 가족관계 및 세무에 관한 상담
- 소비자 피해고발 및 구제 등 소비자 상담
- 그 밖에 시민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문의사항: 043201-1595

[푸르메재단] 2018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 자매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기간: 2018.2~2018.11(10개월)
신청기간: 2017.12.1~2018.1.19
지원대상: 장애어린이(만18세미만) 형제·자매로 둔 만 18세미만의 중 고생
지원내용
지원항목 교육비(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 가능)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지원기간: 최대 10개월
지원인원: 50명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담당자 이메일 접수)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진행일정
- 심사: 2018.1.24.예정
- 지원자 선정발표: 2018.1.30.예정
문의: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 (02-6395-7010/shy0923@pumef.org)

[밀알복지재단] 장애아동수술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기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중위소득 80% 미만)
지원대상
- 장애아동 수술비: 의료가 지원이 필요한 20세 미만 장애아동 청소년
- 안면장애인 수술비: 안면수술이 필요한 24세 미만 아동 청소년
지원시기: 수술비 정산 후 2주 이내
신청기간: 상시접수

[충북사회복지자협회] 제11대 충청북도사회복지자협회 선거안내

선거일시: 2018.2.7(수) 09:00 ~ 18:00
투표방법: 현장투표 및 온라인투표 병행 실시(선거규정 제30조)
- 현장투표: 지정투표소 방문하여 본인인증 후 현장투표(PC이용)
- 온라인투표: 휴대전화 및 인터넷 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이용
- 법인명 또는 타인명의 휴대폰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온라인투표를 할 수 없고, 컴퓨터 등을 이용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선거인(선거권자): 충청북도사회복지자협회 회원으로 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2015년, 2016년, 2017년)

지역사회봉사단

봉사 이해관계자 집합교육 진행

충북사회복합, 자원봉사 역량강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심의보)는 11월 20일 소속 지역사회봉사단 하모니(단장 홍승아) 외 4단체(올리브피피, 세우만두, 드림, 두드림)를 대상으로 서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강의실에서 행복웃음엔 구원 서요석 원장님의 강의로 이해관계자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이해관계자 집합교육은 즐

겁고 신나는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주제로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 도모, 활성화 및 지속적인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진행했다.

교육은 자원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토의와 함께 간단한 레크레이션으로 진행했다. 하모니를 비롯한 각 봉사단체는 레크레이션을 통해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가졌고, 자원봉사활동에서 집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배웠다.



하모니 홍승아 단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진정한 봉사활동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레크레이션도 진행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라고 전했다. 하모니 외 4단체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봉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거복지로드맵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 방안

청년

- 01 청년주택 30만호 공급
소형, 일자리 연계형 임대 25만호, 기숙사 5만 호
- 02 맞춤형 전월세 대응
25세 미만도 전세대용 지원, 월세 대응 한도 확대
- 03 청년 주택형 청약확장 도입
최고 연 3.3% + 청약 가능, 비과세
- 04 정보 교육 강화
마이홈포털 기능 강화

신혼부부

- 01 임대주택 20만호
혼인기간 7년내 임대 예비 부부
- 02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시세 80%, 수요자 분량·임대 선택
- 03 분양주택 특별공급 2% 확대
국·공공 15 ~ 30%, 민영 10 ~ 20%
- 04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구입) 1.70~2.75%, (전세) 1.2~2.1%

고령층

- 01 임대주택 5만호 공급
무장애 설계, 복지서비스 연계
- 02 연금형 매입임대
(LH)고령자 주택 매입 매각 → (고령자)연금 + 임대주택
- 03 주택 개보수 지원
수선유지금이 추가 지원(50만원)

저소득·취약계층

- 01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 02 주거급여 강화
- 03 긴급지원주택 도입
- 04 비주택 거주자 지원
- 05 중증장애인 우선공급(지원)
- 06 그룹홈 활성화
- 07 빈곤 아동가구 지원

국토교통부

인사동정

공직생활 절반을 장애인 인권에 쏟아...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영숙 관장

이 관장은 공직생활 절반 가까이 장애학생 성교육과 인권관련 교재개발 및 강의를 전담해 오며,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임마가 하는 내 아이 성교육,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통합미술활동 지도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일반교사용

지침서, 유아특수교사의 역할 갈등 해결을 위한 상황별지침서 개발 연구 등 20여편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기도 했다.

2007년에는 여 통합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행정 지원에 관한 연구로 교육학 박사학위도 받았다. 특수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지적장애학생들이 참여한 스카우트특수대 활동을 방과후 활



동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보급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담당관으로 협의회 운영 등 현장지원을 해왔으며 전국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컨설팅과 교육과 자료개발 등 장애학생 인권보호에 앞장 서 왔다.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 2014년에는 대교문화재단의 특수교육 부문 눈높이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자원봉사자모집

보호작업장 작업보조

관리센터: 민들레장애인보호작업장
활동기간: 17.10.24~17.12.31
전화번호: 043-233-8302

노리마을 장난감도서관 운영보조

관리센터: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활동기간: 17.11.17~18.2.14
전화번호: 043-237-8774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리센터: 현암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17.11.30~18.2.28
전화번호: 043-266-0957

무지개도서관 녹음도서 모니터링 보조

관리센터: 무지개도서관
활동기간: 17.12.1~18.3.31
전화번호: 043-237-5544

네일아트 활동보조

관리센터: 청주시립요양병원
활동기간: 17.12.1~18.6.30
전화번호: 043-220-8029

장애인가정청소년 멘토링, 멘토모집

관리센터: 남청주비전하우스
활동기간: 17.12.8~18.2.28
전화번호: 043-255-0407

요양원 실내봉사

관리센터: 요양원 행복의집
활동기간: 17.12.18~18.5.31
전화번호: 010-7543-3637

2018년 겨울방학프로그램(아동,중등부)

관리센터: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18.1.8~18.1.26
전화번호: 043-295-2505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요청인원: 0명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복/지/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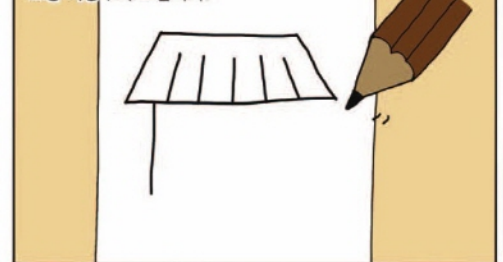
순서

이창신 www.bokmani.com

순서

글/그림 이창신 www.bokmani.com

사람들은 집을 그릴 때 보통 지붕부터 그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을 지을 때는 아래부터 그립니다.



높이 올라가려면 아래에서부터 차레로 올라가야 합니다.